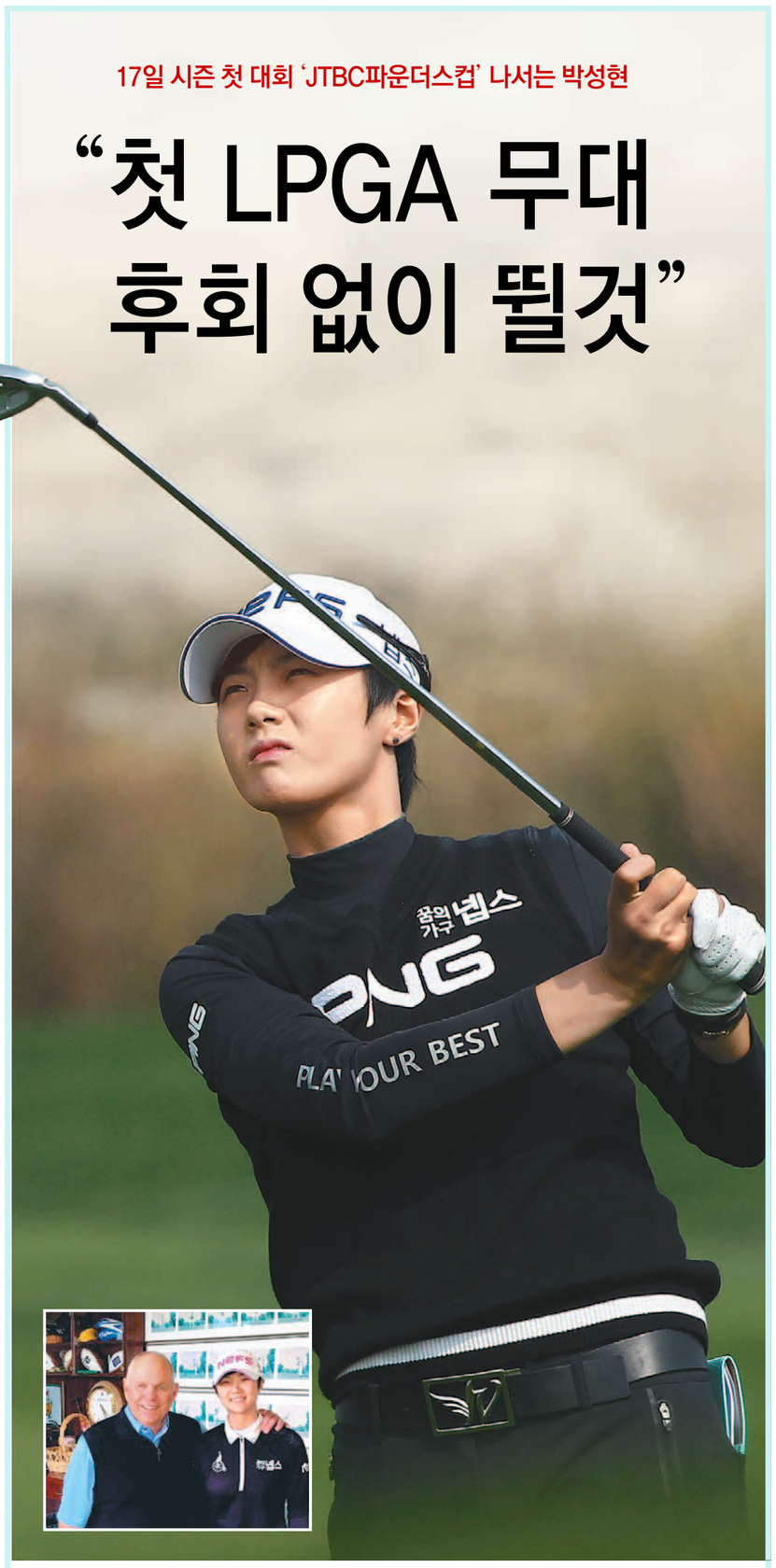
17일 시즌 첫 대회 'JTBC파운더스컵' 나서는 박성현

"첫 LPGA 무대 후회 없이 뛸것"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성현이 17일 밤(한국시간)부터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열리는 LPGA투어 JTBC파운더스컵에서 시즌 처음 출격한다. 생애 첫 미국 본토 무대 출전을 앞둔 박성현은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작은 사진은 우즈의 옛 스승인 부치 하먼을 만난 박성현.
사진제공 | KLPGA·스포츠동아DB·박성현인스타그램

두달 넘게 전지훈련…체력강화 집중
'우즈 스승' 부치 하먼에게 특별 레슨
"첫 LPGA 투어, 설레는 마음이 크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

박성현(23·넵스)이 돌아온다. 작년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우승을 마지막으로 긴 겨울훈련에 들어갔던 박성현이 96일 만에 필드로 복귀한다.

박성현이 2016년 첫 시험무대로 선택한 곳은 국내가 아닌 미국이다. 17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장(파72)에서 개막하는 LPGA투어 JTBC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시즌 첫 대회를 치른다.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LPGA투어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하나외환챔피언십(공동2위)에서 LPGA투어 선수들과 대결해본 적은 있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처음 출전한다. 관건은 낯선 분위기와 환경 적응이다. 코스도 다르고 갤러리들도 국내에서 보고 느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박성현도 나름 철저히 준비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기아클래식 그리고 ANA 인스퍼레이션까지 연속 출전할 예정인 박성현은 예년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칼을 갈아왔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겨울을 보냈다. 박성현은 작년 12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미큘라에 전지훈련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2014년 겨울에도 같은 골프장에서 훈련했다. 그러나 올해는 한 가지 변화를 줬다. 훈련 도중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해 약 3주 동안 새로운 코치와 호흡을 맞췄다. 바로 타이거 우즈의 옛 스승인 부치 하먼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기에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대신 그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레슨을 받았다.

박성현은 "약 3주 동안 부치하먼스쿨에 머물면서 어프로치 등 쇼트게임 훈련에 집중했다.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새로 익힌 기술을 더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며 만족해했다.

두 달 넘게 진행된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체력훈련에 특히 신경을 썼다. KLPGA투어는 올해 대회가 더 늘어났고, 시즌 개막 이후엔 18주 연속 대회가 진행되는 등 강행군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박성현은 LPGA투어에도 출전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해보다 체력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박성현은 "이번 동계훈련 동안 특히 체력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해서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하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경기를 하면서 채워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즌 첫 대회를 LPGA투어에서 치르게 된 박성현은 부담 대신 후회 없는 경기로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대회장에 도착한 박성현은 "첫 LPGA투어 출전이라 그런지 마치 처음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 크다. 또 걱정도 된다"면서 "우승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각오를 보였다.

박성현은 지난 시즌 KLPGA투어에서 3승을 기록하며 전인지에 이어 상금랭킹 2위에 올랐다. 장타가 특기인 그는 국내보다 미국 무대에서 더 잘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시험무대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팬들의 관심도 크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한번이라도 연루땐 영구제명

문체부, 강도높은 비리근절 대책 마련
전형과정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강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15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실력 외 변수가 작용하는 그릇된 체육입시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경기실적 발급 강화와 관련 비리자 영구제명 등 강력한 방안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을 운영해왔고, 전담팀이 이번 종합대책의 산파역을 맡았다. 종합대책은 객관적 입학전형을 가능토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입학비리 적발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대입전형과정에서 핵심적 평가요소임에도 부실하게 운영됐던 경기실적증명서와 관련해 기록시점부터 입력·관리, 발급, 제출 때까지 전체 과정을 개편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단체종목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서 발급 대상 종목을 기존 3개(야구·축구·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했고, 운영창구도 온라인사이트(sportsg1.or.kr)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 동영상 제공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시 종목단체 통보를 의무화했다.

사후 조치로 입학비리가 발생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 공식대회 출전을 일정기간 정지시키고,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개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영구제명토록 했다. 나아가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는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을 정지시키고 지원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돼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할로 분데스리가

재미를 넘어 사회적 통합을 가르치는 독일 키즈 축구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어릴 적 태권도장과 함께한 기억들이 있을 듯하다.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전국 각지에 태권도장이 있고, 어릴 때부터 쉽게 태권도를 접할 수 있다. 독일에선 축구가 국민스포츠다. 독일국민에게 축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프로그램에는 독일만이 추구하는 철학도 담겨있다.

이미 독일의 어린이축구클럽은 2004부터 3부리그까지 체계화돼 있으며, DFB(독일축구협회)에 가입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만 해도 130만명에 육박한다.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 축구를 접하는 아이들은 훗날 월드컵에서 활약하기도 하고, 일찍부터 지도자 과정을 거쳐 만 28세에 데뷔한 율리안 나겔스만 호펜하임 감독처럼 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의 이런 축구시스템에는 축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더 원대한 목표가 있다. '축구는 재미가 우선이다. 또 재미 속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는 것이다'라는 이상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독일의 키즈클럽은 교육적 목적을 강하게 띠고 있다. 축구클럽들은 각 도시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 박물관부터 미술관, 식물원 등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 도서관에서 단체로 공부를 시키기도 한다. 또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여름캠프에선 독일 전역의 키즈클럽이 전부 모여 대규모 트레이닝을 하기도 한다. 여름캠프 기간에는 분데스리가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클럽들도 방문해 활발히 교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독일의 키즈클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바로 '사회적 통합'이다. 독일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이 모여 독일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 얽힐 수 있는 것은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키즈클럽에서 종사하는 구보 마사토(21) 유소년 코치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만 해도 아프리카인부터 정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라에서 왔다. 가르치고 있는 나만 해도 외국인인데, 모두 독일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어릴 때부터 차별 없이 지내는 것은 중요한 의미인 것 같다"고 밝혔다.

독일국민에게 축구, 아니 스포츠는 삶의 일부와도 같다. 운동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따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며, 스포츠 앞에서 평등한 삶을 산다. 그런 이유로 독일에서 스포츠는 특별하면서도 평범하다. 유명 선수들이 술집에 가면 일반 시민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거리낌 없이 맥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퀼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

PO 2차전 인터피어 비디오 판정의 교훈…'아는 것이 힘!'

스토리 발리볼

임도헌 감독, 룰 잘못 적용 판단 재심 요청
"인터피어 아니다" 심판위원장이 최종결정
룰 숙지한 임감독, 재심요청 모범사례 남겨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NH농협 2015~2016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 삼성화재-OK저축은행의 2차전에서 묘한 상황이 나왔다. 배구 룰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더불어 V리그의 재심요청제도가 제대로만 사용된다면 꽤 유용한 제도라는 것을 한 눈에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발단

삼성화재가 세트스코어 1-2로 뒤진 4세트 초반이었다. 2-3에서 삼성화재가 시간차 공격을 시도했다. 미끼 역할을 하는 이선규가 먼저 뜨고, 뒤따라 들어온 류윤식이 공격을 했다. 류윤식은 착지과정에서 앞으로 중심이 쏠리자 네트터치를 피하려고 네트 아래로 최대한 몸을 숙였다. OK저축은행 한상길은 블로킹을 시도했다. 한상길의 손에 맞은 공은 네트를 크게 출렁이게 한 뒤 OK저축은행의 코트로 떨어지려고 했다. 내려오던 한상길이 주저앉아 리바운드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이 공이 네트 밑에서 등을 돌린 채 있던 류윤식에 맞았다. 쉽게 보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었다.

●전개과정

주심은 류윤식의 인터피어(interfere·방해)라고 판정했다. 삼성화재는 항의했다. "인터피어가 아니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V리그 대회 요강 제39조(경기 중 재심요청)의 첫 번째 항을 적용했다. '주심이 규칙이나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였다. 사실 판정이 아니고 룰 적용의 잘못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성화재 임도헌 감독의 대응이 적절했다.

심판감독관과 경기감독관, 주심까지 모여 플레이 영상을 보며 의견을 나눴다. "규칙 적용에 대한 재심요청의 경우는 주심을 재심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한다"는 재심요청 규정 3항의 첫 번째를 적용했다.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되자, 한국배구연맹(KOVO) 김형실 경기위원장과 김건태 심판위원장까지 모였다. 재심요청 규정 6번째 사항을 적용했다.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심판 감독관은 관련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랐다. 적절한 조치였다.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본 뒤 경기감독관은 "인터피어가 아니다"고 발표했다. 즉, 주심의 최초 룰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임도헌 감독(정면 오른쪽)이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 OK저축은행과의 2차전 4세트 도중 주심이 내린 류윤식의 인터피어(interfere·방해) 판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그러자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은 "상대의 네트터치"라고 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화재의 득점으로 인정됐다. 두 감독이 '쿨하게' 결정을 빨리 받아들이고 납득해 경기는 무사히 재개됐다.

●팩트와 해결과정

이 상황에서 나온 팩트만 정리하면 이렇다. 첫 번째 류윤식의 네트터치 여부. '볼에 밀려서 흔들린 네트에 선수가 닿았을 경우는 네트터치가 아니다'는 규정에 따라 류윤식은 네트터치가 아니다. 두 번째 인터피어 여부. 상대방의 정상적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인터피어를 가리는 기준이다. 이 상황에서 한상길은 네트를 이용한 리바운드 플레이를 했는데, 류윤식에 의해 방해를 받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류윤식은 의도적으로 상대 수비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공이 자연스럽게 와서 닿았을 뿐이다. 그래서 인터피어를 선언했던 최초의 룰 적용은 틀렸다. 세 번째 리플레이 여부. 공이 류윤식에 맞는 순간 볼 데드 상황이다. 즉, 랠리의 종료다. 류윤식의 몸은 삼성화재 코트에 있었다. 공이 류윤식에 맞는 순간 이미 센터라인을 넘어갔고 랠리가 종료됐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득점이라는 것이 이날 나온 최종결론이었다.

●교훈과 문제점

올 시즌 룰 적용의 잘잘못을 놓고 많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시즌 막판 중요한 경기에서 모범사례가 나왔다. 룰을 제대로 아는 감독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적절히 움직였고, 감독관들도 현명하게 대응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재심요청제도를 제대로만 쓴다면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 교훈이지만 문제점도 나왔다. 이날 감독관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명확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김건태 심판위원장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배구 룰을 잘 아는 사람이 최종결정을 내린 것은 좋았지만, 한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순 없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돼서 이런 상황에 여유 있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걱정이다.

전문위원들이 전문가답게 더 많은 배구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아는데, 생각만 할 뿐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KOVO나 배구인 모두 손을 놓고 있다. 투자와 육성 없이 전문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근 심판위원장의 임기를 놓고도 많은 말들이 들린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중요한 경기에서 룰 적용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되면 리그가 흔들린다. 남자프로농구에선 계시원의 실수로 2002~2003시즌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15초가 사라지는 바람에 총재가 물러난 적이 있다. 오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같은 진행의 실수, 룰 적용의 미숙이다. 비전문가에게 맡겨두기에는 결과가 너무 무섭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